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문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충현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이번 주 금요일(23일), 저녁 7시 충현교회에 은총의 단비가 내립니다!

제1차 청지기훈련, 그리스도의 교회(겔 34:26)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치참하게 짓밟혔던 유대인들은 또다시 부패한 목자들로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던 이들에게 말씀의 단비가 내립니다.(겔 34:23~26) 무엇보다도 이 회복의 예언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 충현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청지기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23일)에 해야 할 많은 일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청지기훈련입니다. 이미 말씀의 잔치는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잔치에 참석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기근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눅 14:23) 특히 말씀을 증거하실 위임복사님과 수종들은 많은 일꾼들, 적절한 기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일에는 많은 혼잡이 우려되오니 서둘러서 오시고 가끔씩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탁아부도 운영되며 어린이와 함께 참석하실 부모님을 위한 장소도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청지기훈련 직전 배치도 및 안내는 본지 7면을 참조하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21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이번 주 수요일(21일)부터 3월 31일(토)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 기간 중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주력 교구별로 진행(새벽 4:50 시작)되니 각 교구는 주력 교구 일정표를 참조하여 더욱 적극적으 나오시기 바랍니다.(갈 2:20)

주력 교구 일정표 2월 21일(수)~3월 31일(토)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날 짜	주력교구
2월 21일(수)	1, 14, 18교구	3월 7일(수)	9, 12, 17교구	3월 21일(수)	5, 8, 15교구
2월 22일(목)	4, 10, 13교구	3월 8일(목)	3, 6, 7교구	3월 22일(목)	2, 11, 16교구
2월 23일(금)	5, 8, 15교구	3월 9일(금)	1, 14, 18교구	3월 23일(금)	9, 12, 17교구
2월 24일(토)	예배취	3월 10일(토)	예배취	3월 24일(토)	예배취
2월 25일(주)	예배취	3월 11일(주)	예배취	3월 25일(주)	예배취
2월 26일(월)	2, 11, 16교구	3월 12일(월)	4, 10, 13교구	3월 26일(월)	3, 6, 7교구
2월 27일(화)	9, 12, 17교구	3월 13일(화)	5, 8, 15교구	3월 27일(화)	1, 14, 18교구
2월 28일(수)	3, 6, 7교구	3월 14일(수)	2, 11, 16교구	3월 28일(수)	4, 10, 13교구
3월 1일(목)	1, 14, 18교구	3월 15일(목)	9, 12, 17교구	3월 29일(목)	5, 8, 15교구
3월 2일(금)	4, 10, 13교구	3월 16일(금)	3, 6, 7교구	3월 30일(금)	2, 11, 16교구
3월 3일(토)	예배취	3월 17일(토)	예배취	3월 31일(토)	예배취
3월 4일(일)	예배취	3월 18일(일)	예배취	4월 1일(월)	특별주일
3월 5일(월)	5, 8, 15교구	3월 19일(월)	1, 14, 18교구		
3월 6일(화)	2, 11, 16교구	3월 20일(화)	4, 10, 13교구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와 그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의 죽음과 그의 사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믿음의 대상 세상 어느 곳에서도 숨을 쉬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 이 없는 믿음”이어야 한다.(딤후 1:5) 여기에 “거짓”이란 단어는 배우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우리를 역시 이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베드로의 믿음도 다른 헛된 것들로 심하게 섞여 있었지만 마침내 회개한 후에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눅 22:31,32) 이제 베드로는 “귀한 믿음”에 관하여 언급한다.(벧전 1:7) 오늘날에도 노아와 롯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찾을 수 있을까?(눅 18:8, 17:26~30)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약 1:6)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둘 때에 충분하게 믿고 의지할 이유가 있다.(요 14:1)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은 믿음을 만들고 발전시키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딤후 2:13)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있다.

믿음의 반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곧 그리스도를 향하여 응답하는 믿음을 말한다. 먼저, 주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믿음은 주님을 모셔들이는 것이다.(요 1:12) 받아들이니 이 믿음은 곧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과 또 그가 공경하심에 매순간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의롭게 하여 주신 예수님은 추하고 험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능력과 거룩하심, 기쁨, 사랑, 믿음으로 대신 이루어 주신다. 영광의 주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의 약속만을 붙잡을 뿐이다.(고 후 6:16) 또 나아가 믿음은 그리스도를 모셔들이는 것과 그 이상으로 그에게 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롬 1:5) 이것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증거이다.(롬 6:13,16)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노력, 투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며, 믿음은 실천도 따라야 한다. 이 둘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믿음의 생활도 있어야 한다.(시 37:7) 어린이이처럼 단순하게 주 안에서 쉬며 또 우리 삶을 위한 그의 은혜로우신 목적 안에서 쉬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마 11:28,30)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 그 안에서 참을 얻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실현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게 된다.(롬 14:23)

믿음의 진보 바울이 언급하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있어 불투명하여 빠져들지는 것을 뜻한다. 이 믿음은 처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응답하는 믿음으로부터 다시 믿음이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또 그 자체로 인하여 변화되어 간다.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실 때에 이 진보된 믿음을 암시하고 있다.(롬 1:17) 예수님은 늘 함께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신다.(막 4:40; 막 12:28)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이해하고 있었다.(마 8:10) “믿음이 없는 것”,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진보함을 본다. 그러나 “전적인 믿음(Total Faith)”의 가장 큰 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히 12:2)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곧 믿음을 만드신 저자(Author)를 의미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과, 인간을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그의 영혼 속에서 넘쳐나는 빛난 믿음의 즐거움은 고난과 슬픔과 수치의 십자가라도 막을 수가 없었다.(히 11:6) 믿음의 시련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진보, 승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간다.(벧전 1:7; 요일 5:4; 계 3:21)

인간의 믿음은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 녹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도 말미암은 믿음의 진보 즉, 변화된 믿음은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남 후여 남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믿음은 항상 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영원히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골 2:21,2)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누구나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마 25:21)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아멘.

I AM THE DOOR OF THE SHEEP

(7) So Jesus said to them again, "Truly, truly, I say 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8) "All who came before Me a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hear them. (9) "I am the door; if anyone enters through Me, he will be saved, and wi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10)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John 10:7-10)

Today's passage begins by telling us that Jesus had to repeat His message to the group He was speaking to, "So Jesus said to them again, 'Truly, truly, I say 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v. 7) It appears that the people were not listening and His point was important enough for Him to say it twice. Obviously, this statement is something we need to pay serious attention too, but today's churches like to preach about the blessing Jesus, the fun Jesus, and the healing Jesus not the real Jesus. Jesus said He is not like that; He taught that He is the door of the sheep. His great spiritual teachings of truth are simple. When humans find just a spark of truth, they elaborate through long and tedious examples, but Jesus explains pure things in short and basic terms. For example, He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Jn. 6:35) He also said,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n. 9:5) How clear is that? Unfortunately, people still never pay attention even though He made it so easy for them to understand the deep things of God. His expressed words are a simple salvation message for sinners. If you pay attention, you get saved. If you do not pay attention, you get damnation. Our current world is filled with false images, fancy ideas, and fake doors. People try to sell salvation in all kinds of forms. They give you a bill of sale that is worth nothing. Jesus said again, "I am the door of the sheep." What does that really mean?

It means that Jesus is the door! The purpose of doors is for entering and exiting a given place. Jesus is the door to forgiveness. John 3:17 says,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This is really clear cut. You need to get out from under the curse. Everyone is born under the curse that leads to death. You can exit the curse through Jesus. Romans 5:1 say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hoever enters the door of Jesus is justified. We are all dead in our trespasses and sins, but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we can enter the door to the Kingdom of God (Eph. 2:1) Those who trust in Jesus exit spiritual death and enter eternal lif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 Cor. 5:17) John 3:36 says,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Jn. 5:24)

It is so simple. Jesus is the door that allows you to exit eternal death and hell and enter eternal life and heaven. Listen to these precious biblical words,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Jn. 5:12&13) Eternal life is present possession. You can enter now.

Jesus Christ is the only door. He explained, "All who came before Me a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hear them." (v. 8) There is no other door to forgiveness. There is no other door to new life. There is no other door to heaven. There is no other door to eternal life. Many try to find other doors, and there are so many different religious doors, like baptism, communion, good works, giving money to charities and churches, etc. Acts 4:12 says,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Jesus Christ is the only door. No one can come to God but through His door, which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door for all who believe. If anyone enters, they will be saved. It does not make a difference what nationality or color you are. The invitation is open to all.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Romans 10:13 also says,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ll races and all peopl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receive salvation. Those who enter this door find salvation. There is no doubt about it! If your faith is real, you become a child of God and enter into His sheepfold where you will find perfect pasture.

My dear friend, Jesus said, "I am the door; if anyone enters through Me, he will be saved, and wi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vv. 9&10) Please, please reject all the other doors. Those who stand by these doors are all robbers and thieves, no matter how nicely they dress or cleverly they talk. They may have material wealth to lure you, but Jesus does not work that way. They may appear divinely humble, but if they do not preach Jesus as the door, then they offer you death. This church preaches Jesus as the door, the only door, for everyone who wants to be with God. If you walk through the doors of this church as a sinner, you will not be saved, but we will direct you to the door of Jesus, which will save you. If you knock on His door, He will open it for you. Jesus Christ awaits your knock. Please do not delay. 📖

다음 주일 설교

나는 양의 문이라

⑦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⑧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⑨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⑩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7~10)



김성파 목사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7절) 이처럼 주님께서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신 까닭은 그 말씀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우리가 매우 유념해서 들어가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에서는 양의 문이신 예수가 아닌 축복의 예수, 재미있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5)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잘못된 우상, 환상에 불과한 이념, 가짜 문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매매중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의 참 뜻은 정말 무엇입니까?

영생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임을 의미합니다. 문은 일정한 장소로의 출입이 그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한 유일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3:17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제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이끄는 저주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로마서 5:1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 2:1)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요한복음 3:36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이처럼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망과 죽음에서 빼내어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문입니다. 이 주축 같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2,13)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생의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8절) 죄 사함을 얻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새 생명으로 열린 문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들을 찾으려 애씁니다. 세상에는 외식으로 가득한 종교예식이나 선행, 구제 등 매우 다양한 종교적인 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12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써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문입니다.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국적이나 피부색 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0:13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풍부한 복이 있는 예수님의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10절) 제발 다른 모든 문들을 거절하십시오. 이 문 곁에 있는 자들은 모두 강도요 도적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차려 입고 지체롭게 말한다면 할지라도 결코 속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은 풍부한 물질로 여러분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거룩하고 겸손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그 문이시며 오직 유일한 문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교회의 문만 드나들다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2. 14.)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 (마태복음 15:21~28)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마 15:21)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이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간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더 험악한 도시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한 간구로 가득하지 않은가?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소외당했던 가나안 여인이 드리는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를 마음에 새기자.

가장 귀한 자식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 어떻게 보면 간구하고 싶은 일이었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딸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외쳤다. “주 다향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었다이다”(마 15:22) 이 여인의 딸은 머리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것이었다.(막 7:25)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학업, 직장, 건강 등이 땅에 속한 것들에 매여 주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은가?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가나안 여인의 가장 귀한 딸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딸을 괴롭혔던 악한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보혈의 능력만이 악한 사탄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다.

주님은 대답을, 응답을 늦추고 계시다 간절히 호소하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마 15:23a)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다.(고전 10: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금하게 주님께 보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출애굽 때, 그리고 광야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포함해서 이들은 매일 기적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여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슬러 오”(고전 10:11) 자신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보자. 전통에 매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의 교회는 경험, 노력,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야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 양육하기 어렵다와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자.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논쟁 여인의 호소에 제자들은 귀찮아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마 15:23b) 제자들은 뒤에서 시끄럽게 하는 여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보내줄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였다.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았다. 이 모습은 여리고성을 지날 때 만난 한 저지 소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눅 18:38,39)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제자들이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가나안 여인을 빨리 보내려는 제자들의 뜻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냉랭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께 더욱 매달렸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마 15:25) “주여 울소이다”라는 겉돌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이다”(마 15:27) 가나안 여인은 겸손한 믿음, 잘 곳을 알고 있었던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으로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다. 가져차처럼 작은 믿음이다.(마 17:20) 땅에 떨어지는 겨드랑이 같은 믿음이다.(요 12:24) 그러므로 자신의 업적, 공로에 기초한 믿음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올바른 믿음의 간구가 있게 하소서”

여인에게 대답을 주시다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마 15:28) 이 여인의 간구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 아니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다. 단순히 가족을 위한 기도였다. 이 기도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셨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이다. 이 날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믿음의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요일 5:14,5)

가나안 여인의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은 우리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자. 세상적인 형통함으로 넘치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이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그 다음 일은 당신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 믿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믿음이 자기부인이 있는가? 를 살펴보자. 이제 곧 땅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볼 것이다.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로 거듭난 은총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인류는 하나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믿음과 희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찬 272장) 아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적위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서 기적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날 뿐 정작 나에게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준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곧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다.(요 6:29) 기적위원회 실행위원들이 이 말씀을 나누며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는 것보다 주어진 일을 잘 하려 하고,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더 많은 기원과 비전을 두고 있는 모습들을 회개하였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적위원회가 되기를 깨어 기도할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주님의 말씀에 기적위원회의 모든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 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도록 할 것이다.(약 2:20)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는다. 이를 위해서 노인 복지를 위한 양로원 설립과 천국일꾼 양성을 위하여 수양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에는 운영과 복지를 위한 사례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며 검토하려고 한다. 또한 총원동선에 남급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계기로 장래에는 소규모와 확장시설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장례시설을 준비하려고 한다. 교회에서는 이 미 유망의 교회 시설들을 보고 왔으며 국내의 여러 교회 시설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모으며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회의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어 운영과 관리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하며 진행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금요찬양집의 시에 주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음에도 여전히 내 속에 살아 있는 자아에 대한 연인이 나를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나를 물러서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핑계로 세상 줄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회개하며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만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에 오늘도 나를 비롯한 기적위원회의 일꾼들은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한길(장로, 기적위원장)

나는 주님께서 우리 팀을 어떻게 이끄실지 정말 기대가 되었다. 하지만 난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시험에 들어버렸다. 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선교지로 출발하는 일정이었지만, 열악한 숙소 환경과 피곤에 지친 몸 때문에 벌써부터 한국에 갈 생각, 한국 음식, 우리집의 네 방이 너무 무나도 생각났다.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우리 팀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그곳은 정말 산골 속에 있었지만, 산골에 있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한 도시였다. 이곳에서 이제 이를 동안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역 첫날, 변화한 도시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찾아 떠난 우리 팀은 소수민을 만나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사역 둘째 날, 이 날도 첫날과 마찬가지로였다. 첫날 사역평가회를 할 때 학생들의 생각은 같았다. 현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선교를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내가 경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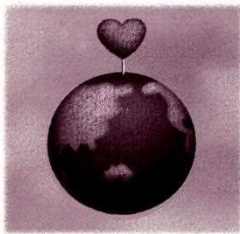
'그 무언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

선편교 중에 이런 선편교는 해 본 적이 없는 데...' 나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둘째 날 사역평가회 시간에는 평가가 조금 달랐다. 비록 결실이 없기는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였지만 둘째 날에는 평가가 달랐다. 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차로 이동중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난 사역평가회 시간에 비로소 그 무언가를 찾아내었다.

'그 무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팀에게 내려주신 '은혜'였다. 둘째 날 평가회 시간에 난 이렇게 고백했다. "매년 선편교를 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매년 똑같은 선편교가 아닌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선편교가 있다는 것, 또한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를 부인할 때에만 참 믿음으로 선편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이번 선편교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오다현(고등부 3팀)

눈물로 드린 기도의 힘



저의 첫 선교 준비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2차 심사에서 채집사, 3차 심사에서 채집사를 계속 받게 되어서 심사가 정말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집사 때문에 저의 믿음은 조금 더 단련되었고, 전도 언어와 현지어 천양을 정말 완벽하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출발 날까지 점점 다가오자 저의 믿음이 떨어져서 출발 하루 전날 저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기도하기 전에 몹시 아프던 배가 쉼 없이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정말로 불쌍한 영혼과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정말 부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노방전도와 축조전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노방전도가 더 힘들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몇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마귀의 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른 친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주님께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역중에 힘들고 덥고 배고팠지만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여 시험을 이겨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열심히 잘할 것을 다짐하며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되겠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가현(중등부 1부 3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4일(토) ~ 3월 1일(목)	대학부 4팀	지규성
2월 24일(토) ~ 3월 1일(목)	대학부 7팀	장정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5일(목) ~ 2월 23일(금)	청년1부 1팀	박광식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5일(월) ~ 2월 13일(화)	직원 2팀	최춘호

에루살렘 찬양대원 명단

대 장 노광현
부대장 안석현 최태민 신일순
총 무 이호일 백희숙 명정숙 김인술 권 철
부총무 조영철 원길자 유순성 김유정 유재진 김단용
봉사부 신소자 안정희 이미재 남정애 이용현 장영환
이부성 이인영
회 계 이은자
부회계 오화자 김은희
지 휘 차신득
부지휘 유수영
반 주 김미리
파트장 S / 김 순 현재식 A / 정정자 서계실
T / 박순호 B / 정재복

소프라노

강봉순 강정일 강경희 강호인 박갑수 구국자 권영진
김계자 김국자 김진득 김남순 김남진 김덕수 김복희
김삼희 김 순 김순복 김순이 김순자 김순자 김순자
김연단 김영하 김옥래 김은심 김유순 김유정 김은희
김계숙 김정복 김경자1 김경자2 김종순 김주리 김한선

김현자 김해숙 김후진 김희숙 남현숙 노광희 문명애
문순옥 문현숙 민순애 민정순 박송근 박영순 박영임
박경숙 박태순 박태순2 반병화 배상남 백경숙 백희숙
변순복 변현숙 봉영옥 서양순 서인희 서정자 서순실
성기동 성순순 손옥희 송수자 신순애 신영순 신일영
신자식 심영보 안금옥 안정희 여옥인 오화자 유수영
유순성 유정자 원길자 유남순 유영선 유영자 윤병주
윤여진 윤옥자 윤재춘 윤재춘2 윤필재 이가옥 이강자
이경자 이동애 이미재 이상덕 이수자 이순영 이순재
이순현 이순희 이영숙 이옥분 이은단 이은자 이희복
이정순 이종숙 이재형 이춘일 이희자 임옥현 임현조
강경순 장만실 장순자 장요성 전막숙 전부덕 전순임
전옥희 전일향 정길재 정성자 정순애 정정실 정주환
조갑남 조윤필 조인옥 조희순 최길자 최 순 최영옥
최경이 최재희 최혜남 한영덕 허연옥 한계식 황규선
황이희

알토

김길득 김경순 김경순 김준지 노정자 명정숙 변성숙
서계실 안소현 안옥실 양명자 연화숙 유규림 이서륜

임원실 전진덕 정정자 조성근 최병초 최순자 필기복
한영숙 허연옥

테너

김단용 김인술 김종구 박순호 박철구 안병택 양태선
엄복실 유성택 유현철 이병옥 이용진 이인영 이태식
장영환 정정자

베이스

강명구 강도용 강 현 권 철 김광남 김구형 김달현
김용실 김은호 김철중 김희경 노광현 박영식 박인애
박준근 송경수 안석현 유재진 이계인 이균우 이 근
이병하 이부성 이용현 이종식 이지은 이창호 이재형
이태식 이하영 이호일 전성민 전영복 전용태 전홍철
정재복 조국자 조영철 조종환 최대현 최성득 최윤덕
최자윤 최자용 탁정현 하대선 황의만

*에루살렘 찬양대원의 자격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65세 이상의 성도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각 교구 일꾼에게 문의바람, 사무국에 신청서 비치)

이제는!

새해가 밝았다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다. 다른 사람들은 한 달간 새해를 맞아 세운 계획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품은 소망을 지키고 한다지만 나는 2007년에 이루길 바라는 특별한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에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새해라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한다. 그저 어제처럼 오늘을 살았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다. 그렇게 2007년 한 달을 보내던 중 금요찬양 집회의 말씀이, 역시 똑같은 하루를 살고 있던 나에게 다가왔다. 금요찬양집회 때 섰던 갈라디아서 말씀(갈 2:20)은 분명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다. 하루하루를 어제와 동일하게 보내며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삶을 소망하지 않는 나에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말로는 이제껏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숨쉬며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한 사망신고였다.

그렇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한다. 나는 섰으며 말씀을 통해 나의 오늘이 왜 어제와 다르지 않은지 알게 되었다. 나는 어제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오늘 여전히 살게 하고 있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됴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했다.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이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어제의 나로 살지 않게 하였다. 주님은 나에게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말씀하신다. 이제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니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서 죽고 주님께 내 삶을 살려 주실 것으로 일어난 거룩한 변화를 소망한다.

강근우(대학부)

하루 종일

찬양가사를 암송하며



세상을 좇고 세상을 바라며 그것들을 즐기며 살았던 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지고 세상에서 본받지 아니하는 날이 되어서야 모든 세상일을 놓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고, 때마다 강단에서 섰포되는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지를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 다. 소망부 회원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자위하면서 조금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 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예수살렘 찬양대가 새롭게 조직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 다. 소망부의 찬양대원뿐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기뻐하였지만 은근히 걱정도 되었습니 다. 육신의 연약함은 물론, 평일에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하는 연습과 암송해야 할 가사, 또 금요찬양집회 시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하는 의무감까지, 힘든 점들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 다.

저는 소망부 찬양대에서 연습에 익숙해 있지만 찬양대 봉사를 해 보지 않은 어르신들이 찬양대에 선다고 하면 말할 수도 없고 저는 고만한 생각까지 품었습니 다. 사탄은 이렇게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였지만 주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임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를 드러야 한다는 믿음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연습을 하고 첫 찬양을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들로 다가왔습니 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찬양하는 중에 실수로 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 달라고 모두 기도하였습니 다. 하루 종일 가사를 암송하며 잘 나가지 않으니 수요부 예배에도 고박박한 나오게 되었습니 다. 금요일에는 일찍부터 집을 나섰니 다. 길에서나 차 안에서 가사 외우는 일에 전념하면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 다. 이처럼 놀라운 은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기에 매일 섰라는 믿음으로 금요찬양집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 다.

정재복(집사, 예수살렘 찬양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교회학교에도 참석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도 제 마음속에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학부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토요일에도 집회를 드리는 대학부가 정말 싫어 평가를 대고 나가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금요찬양집회에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런 죄인 중의 죄인인 저에게도 예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대학부 여는 마당(신앙심 수련회)을 통하여 제가 정말 죽어 망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저에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케 하였고, 중등부에서 교사로 쓰임받게 해주었고, 새벽기도회에

사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 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세살일들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 다. 전 주님께 기도했습니 다. "주님,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주님은 금요찬양집회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20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은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

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 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내가 일개 세상의 일 파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고민했나? 생각되어 부끄러웠습니 다. 또 성조표비를 하면서도 잊고 있던 자기부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제가 잊고 있던 자기부인까지도 한꺼번에 깨닫게 해주셨습니 다. 제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도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며, 주님께 완전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손만 잡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 다. 앞으로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 다.

성종규(대학부)

주님만을 바라며

순종합니다!

교사양성부 수료 후 어느덧 이십년의 세월이 흘렀습니 다. 두 차례의 사고로 공백이 있었음에도 그 동안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제자들이 자녀를 동반하고 반갑게 제자를 해 오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후 물리치료를 받으며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기도 중에 "교사로 오면 어떻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 다. 학년 중간이었음에도 어려움 없이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육신의 약함은 사라졌습니 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우 지치고 힘이 들 때에는 기도의 힘으로 회복하였습니 다. 특히 교회학교 축식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기도해주시는 같은 구역 집사부부의 기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 다. 차 안에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 다. 주님은 저의 부족한 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차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기적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교사로 세워주시 주님께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길 기도합니다.

송명희(교사, 중등부)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위한 말씀 독상

에스겔서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기간 동안(BC 593-570년)에 선지자로서 사역한 에스겔의 예언을 기록한 책이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 1-32장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감을 힘삼아 보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이후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유다와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제2부 33-48장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행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과 참 예배의 회복,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특히 에스겔 34장은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과 선한 목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 거짓 목자들은 양의 기름과 털을 빼앗고, 도움이 필요한 양들을 강포로 다스렸다. 이에 대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 (겔 34:1-10) 또한 거짓 목자를 대신하여 선한 목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다. (겔 34:11-31)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도는 메시아로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연약 공동체의 회복을 완전히 실현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을 받는다!" 아멘.

(편집국)

청지기훈련이 계기가 되어

저는 태중에 8개월 된 아기를 가진 30대 임신부입니다. 흥천교회에 출석한 지 2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에게는 참으로 많고 어려운 시험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불어닥친 태풍과도 같았던 시험들은 저를 계속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신앙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시무하시는 개척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봉사는 하였지만 내 안에 주님과 의의는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잠시 잠깐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버리고 마는 냄비와도 같습니다. 자연스레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봉사하는 해가 거듭될수록 저의 교만과 자랑들이 바벨탑을 쌓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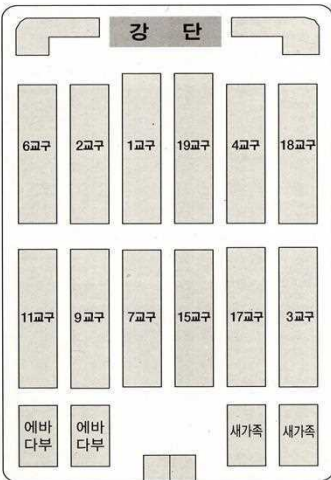
결혼하여 흥천교회에 등록하고 집회에 열심히 내어 참여하면서도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청지기훈련 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 꼭 참석하라는 주님의 권유에 못이겨 마지막에 금요찬양집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저는 저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금요찬양집회에 꾸준히 출석하여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던 제가 모든 집회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부여주시는 은혜 때문에 쏟아져내리는 눈물과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남편과 저는 집회 때마다 성경책과 휴지를 꼭 챙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고 거절했던 저에게 끝까지 손 내밀어 주시고 친히 찾아와주시는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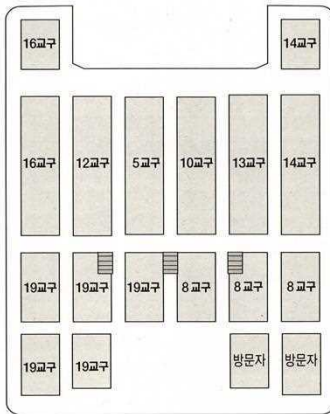
함은주(집사, 16교구)

청지기훈련 좌석 안내

본당 1층 좌석 배치



본당 2층 좌석 배치



-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릴, 나사렛을, 본당 112호 개발)
- 탁아부 : 탁아부실(탁아부), 어린이집(부모와 3세 이하), 영아부실(부모와 5세 이하), 베다니홀(부모와 7세 이하)
-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통로 주차 차량은 먼저 출차(出車)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안내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안내 : 장로·안수집사(제2교육관 지하 3·4층), 새가족(예치와), 노약자·장애우·어린이 동반인 부모(본당 앞)

♡ 새 가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4	영구식	19	청년1부	전은실(14)
235	바비미	19	외선부	이향선(4)
236	윤지숙	19	예배다부	전혜영(13)
237	윤지희	14	청년2부	이영숙(13)
238	최민수	14	청년2부	배관용(13)
239	강정남	12	청년2부	윤순실(18)
240	정철선	12	청년2부	전명식(18)
241	황순애	7	청년2부	조숙진(7)
242	심무주	19	청년1부	김지선(14)
243	김진수	19	청년1부	박선영(9)
244	김종진	9	사별부	이영선(3)
245	정영민	15	청년2부	김다예(15)
246	이금순	7	소일부	박금희(14)
247	이옥자	1	청년2부	
248	김순애	6	청년1부	황순선(5)
249	김희림	15	청년2부	이홍자(12)
250	안다성	8	예배다부	손영민(8)
251	신택운	7	예배다부	주은희(2)
252	박성훈	9	청년1부	김영희(2)
253	김준	2	청년2부	
254	강태현	16	청년2부	강정희(18)
255	이갑선	16	청년2부	이연희(18)
256	김소희	19	중등부	김법진(14)
257	정강민	19	대학부	박미숙(8)
258	전민재	19	고등부	안상직(6)
259	황민재	19	고등부	김옥경(3)
260	주중규이	19	외선부	
261	홍금진	19	외선부	
262	이호선	1	청년1부	김현옥(13)
263	문명식	1	청년2부	
264	송병관	4	청년2부	마현미(4)
265	김세미	19	청년1부	전옥희(7)
266	정민	19	청년1부	허민성(17)
267	이연호	19	예배다부	신성철(19)
268	라씨가	19	외선부	임광선(18)
269	쓰리나	19	외선부	조숙혜(18)
270	이미숙	11	청년2부	배관용(13)
271	이원표	19	청년1부	유종석(14)
272	최소현	19	청년1부	손영민(8)
273	김성태	16	청년1부	김영희(17)
274	고광연	17	청년1부	황은미(17)
275	김진화	18	청년2부	이진규(6)
276	전민영	9	청년2부	유현(9)
277	김민수	17	청년1부	김준이(17)
278	김주영	19	청년1부	김영희(18)
279	최효준	19	청년1부	김세희(11)

* 흥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